

# 삼국~고려시기 군제 연구의 동향

金 鍾 洙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 머 리 말
2. 삼국시기 군제 연구 동향
3. 통일신라시기 군제 연구 동향
4. 고려시기 군제 연구 동향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이 글은 국내 유일의 軍事史 전문 학술지인 『軍史』를 편찬하고 있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집실로부터 최근 2~3년 동안의 삼국~고려시기 군제 연구 동향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작성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삼국·통일신라·고려시기의 군제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발해 군제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지 않아 발해 군제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이 점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발해 군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군제라는 것은 국가의 군사 역량을 조직·관리하는 제도로서 그 안에는 군대의 편제방식, 동원제도, 교육 및 훈련, 군사장비의 개발과 관리, 군인 위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치제도, 토지제도, 신분질서, 상품유통체계 등과 더불어 당시의 전쟁형태, 군사사상 등과도 관련되어 성립·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제 관련 연구의 外延은 상당히 광범하다 할 수 있다. 삼국~고려시기 정치, 경제, 사회 등과 관련된 모든 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군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최근 3년간 발표된 삼국~고려시기 연구 가운데 직접적으로 군제, 군사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논문만을 골라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삼국~고려시기 군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고, 또 필자가 입수할 수 있었던 논문은 34편 정도이다. 2002년 19편, 2003년 14편, 2004년 1편으로 총 34편이다. 군제사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해마다 발표되는 논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라 생각한다. 연구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삼국시기 군제에 관한 연구 논문은 9편, 통일신라시기 군제에 관한 논문은 9편, 고려시기 군제에 관한 논문은 16편이 발표되어, 삼국이나 통일신라시기보다는 고려시기 군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2002~2004년에 발표된 삼국~고려시기 군제 관련 논문을 삼국시기, 통일신라시기, 고려시기로 나누어 각각 그 내용을 짚막하게 소개하고 필자의 소견을 적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필자의 역량과 노력 부족으로 누락된 논문이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연구 성과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거나, 勞作들에 대하여 잘못 언급된 부분도 매우 많다. 또 이 글은 가급적이면 각 논문들을 비판적, 논쟁적으로 접근하려 하였다. 각 논문들의 장점은 거론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단점만을 지적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군제사 연구의 활성화와 비판 문화의 확산에 보탬이 되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각 논문

들의 연구자들께서는 필자의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비판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2. 삼국시기 군제 연구 동향

최근 3년 동안에 발표된 삼국시기 군제 관련 연구는 2002년에 3편<sup>1)</sup>, 2003년에 5편,<sup>2)</sup> 2004년에 1편<sup>3)</sup> 등 총 9편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저서는 1편이고, 나머지는 8편은 논문이다. 이 기간에 발표된 저서 1편은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3. 15)이다. 우선 이 책부터 검토해 보겠다. 이 책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10여 년 전에 제출했던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三國時代 王의 統治形態 研究』를 수정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국가가 체제 지속을 위해 두 가지 일, 즉 대내적으로 지배 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통치 기구의 창출과 대외적으로 통치 영역의 확장과 유지를 위한 군사력의 행사를 수행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역동적인 고대국가의 정점에 왕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고대사회 특히 삼국시대 왕이 통치 영역의 확장 및 유지와 관련하여 수행한 일련의 통치 행위를 검토하고, 하나의 사례로서 신

- 
- 1)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3. 15; 許重權, 「삼국시대의 평양-서울 축선 전쟁 연구 -기원전 1세기~5세기를 중심으로-」, 『軍史』 46집, 2002; 金昌錫, 「唐의 東北亞 戰略과 三國의 對應」, 『軍史』 47, 2002.
  - 2) 金希宣, 「高句麗의 漢江流域 進出과 그 防禦體系 - 漢江流域의 高句麗 關防遺蹟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20, 서울학연구소, 2003. 3; 李仁哲,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金樂起, 「高句麗 후기의 군사편제와 ‘可邏達」, 『仁荷史學』 10, 2003. 2; 徐榮教,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내륙아시아 제민족-안시성전투와 설연타-」, 『軍史』 49, 2003. 8; 姜奉遠,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21, 2003. 1.
  - 3) 徐榮教, 「고구려 기병과 鎧子」, 『歷史學報』 181집, 2004.

라 상고기와 중고기의 권력 구조와 왕권의 위상을 추적하여 고대사회에서의 군사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밝혀 보려 하였다. 구체적 논의의 대강은 크게 넷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삼국시대의 군사훈련과 統帥에 관한 왕의 통치행위 검토, 둘째, 삼국이 수행한 대외 전쟁과 그 기능에 관한 검토, 셋째, 삼국시대의 영역 통제 및 관리와 관련된 통치 행위의 검토, 넷째, 신라 정치 체제의 변천 과정에 관한 검토이다.<sup>4)</sup> 이 중 군제와 관련되어서는 주로 첫째와 둘째 장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저자는 삼국시대에 각국은 해당 사회의 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배경에 상응한 군사훈련과 統帥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고구려는 3세기까지 농경과 수렵이 병존하는 半農半獵의 경제상태에 있었으므로 수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군사적 차원의 통치관행이 고구려왕의 田獵이었다고 한다. 경제생활로서의 수렵에서 비롯된 전렵이 기마사격으로 이루어지는 전술훈련의 성격을 띠었고, 이에 따라 고구려는 전쟁에서 기동력을 수반한 기마전술과 步騎合同戰術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고구려는 수렵사회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공격지향전쟁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백제는 군사훈련과 통수로서의 田獵과 閱兵을 병행하였다고 한다. 열병은 농한기에 실시하였는데, 그 목적은 군사력의 증진과 아울러 농업생산력도 유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백제의 전쟁유형은 狩獵·農耕文化型으로 부를 수 있고 攻·防偏向戰爭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는 농경사회인 까닭에 통치관행으로서의 군사통수는 閱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열병은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군사력의 유지를 위해 농한기에 실시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기동력 부족으로 소국 복속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 기간에 걸친 대외전쟁에서 방어위주 전쟁으로 일관하였다고 한다.

4) 李康來, 「서평: 고대국가 왕의 통치 행태와 그 動因-金瑛河,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270쪽.

이상과 같이 이 책은 삼국의 군사훈련과 統帥를 비교하면서 고구려는 전렵, 백제는 전렵과 열병, 신라는 열병을 실시하였고, 이것이 각국의 전쟁 유형 즉 고구려는 공격지향 전쟁, 백제는 공·방편향 전쟁, 신라는 방어위주 전쟁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저자의 논증 과정은 매우 치밀하지만, 얼마 안 되는 사료를 가지고 과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불안한 감도 없지 않다. 즉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라가 방어위주 전쟁으로 일관하였는지, 또는 신라에서는 田獵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미심쩍은 면이 있다. 한편 이 책은 주로 삼국 군제의 이질성을 부각시키고 이들을 비교·대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삼국이 오랫동안 함께 전쟁을 하면서 영역의 변동 및 문화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져 삼국 간에 사회적·문화적 동질성도 두터워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동질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2년에는 許重權, 「삼국시대의 평양-서울 축선 전쟁 연구-기원전 1세기~5세기를 중심으로-」(『軍史』 46집)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기원전 1세기~5세기에 발생한 전쟁중 평양-서울 축선에서 치러졌던 여러 전쟁들을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여 6하원칙(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의한 전쟁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제1기는 백제가 건국한 이후 고구려에 의해 대동강 유역의 중국 세력이 축출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중 백제 건국 초에는 주로 평양→서울 방향 전쟁이, 백제가 고대국가로서의 기틀을 완성한 3세기 이후에는 주로 서울→평양 방향으로 전쟁이 치러졌고, 전투의 지속시간도 대체로 1개월 정도로 국한되었다 한다. 그리고 제2기는 대동강 유역에 있던 중국세력이 축출된 이후 평양, 서울 양방향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상호 투쟁하여 결국 고구려 장수왕대의 백제 수도 한성에 대한 공격으로 마무리된 시기인데, 제2기 전쟁은 양국이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과 보복이라는 정치·심리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논문은 삼국시대의

전쟁을 6하원칙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단순한 감이 있다. 각 전쟁의 원인과 그 형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2년에는 金昌錫, 「唐의 東北亞 戰略과 三國의 對應」(『軍史』 47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을 華夷論과 德化論으로 구분하였다. 화이론은 中華와 夷狄를 준별하지만 오랑캐 땅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중화제국이 명분상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당나라는 이러한 형식적인 상하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지배·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德化論을 내세웠다 한다. 이것은 주변국가와 종족에 대한 정복과 통치를 의미하며 더 이상 華와 夷의 구별과 차이는 무의미해지고 이들 모두는 황제의 臣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당의 공세적인 외교 방향에 대하여 신라는 당이 요구하는 상하관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였고, 고구려는 당에 저항하다가 결국 멸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는 安勝을 報德國 왕에 봉하여 신라 역시 蕃屬國을 거느린 대국이라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고 한다. 즉 신라는 마치 제후국을 거느린 帝國처럼 행세함으로써 당의 지배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특징은 중국의 외교 노선을 화이론과 덕화론으로 나누어 설명한 점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반도를 침략한 중국 왕조는 唐 이외에도 漢, 魏, 燕, 隋 등이 더 있었는데, 이들의 침략도 과연 德化論에 의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즉 덕화론은 당이 내세운 침략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당의 한반도 침략도 다른 중국 왕조의 침략과 동일하게 한반도를 복속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3년에는 金希宣, 「高句麗의 漢江流域 進出과 그 防禦體系—漢江流域의 高句麗 關防遺蹟과 관련하여」(『서울학연구』 20호, 서울학연구소)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의 개로왕을 죽인 후 백제 태자인 文周를 쫓아 더이상 남쪽으로 진격하지 않고 곧바로 평양으로 회군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고구려가 北魏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철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자는 한강 유역은 장수왕의

한성 함락 당시 곧바로 고구려의 영토로 된 것은 아니고, 이후 고구려와 백제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529년(안장왕 11)에 가서야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필자는 한강북안 아차산 일대 관방유적의 축조연대를 재고할 것을 주장한다. 종래에는 한강유역이 475년에 고구려에 의해 점유되었다는 역사적 정황을 전제로 하여 유적의 중심연대를 5세기 중엽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유적의 성격을 한강 남안의 백제와 대치한 고구려의 군사요새로서 남하하는 고구려군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시기 설정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강 건너 백제 도성에서 쉽게 조망되는 아차산 일대에 한성 함락 이전인 5세기 중엽 당시 고구려군이 주둔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한강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은 475년 한성 함락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003년에는 또 金樂起, 「高句麗 후기의 군사편제와 ‘可邏達」(『仁荷史學』 10)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小城’의 長이며, 중국의 長史에 비견된다는 가라달의 성격과 말갈병의 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이 논문의 2장에서는 ‘小城’의 長으로 『翰苑』, 『高麗記』에 나오는 可邏達은 육살과 처려근지의 지휘를 받는 소규모 부대의 군사지휘자로 추정하고, 이들이 거느린 부대가 말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3장에서는 고구려가 말갈병을 전쟁에 동원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고구려군 내에 말갈병이 어떤 방식으로 편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말갈병은 주로 유격전을 담당하는 부대로 편제되었고, 異種族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구려 중앙정부에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추론하였다. 즉 이탈의 염려가 상존하는 말갈병이 고구려병과 지속적으로 함께 행동하기 위해선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을 텐데, 그 구실을 한 것이 가라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2003년에 姜奉遠, 「인구압력과 전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신라를 중

심으로-」(『新羅文化』 21)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고대 한국사의 정치·사회 발전에 전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고대 한국에서의 전쟁 발발 원인은 카르네이로(Carneiro)<sup>5)</sup> 등이 제시한 이론과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카르네이로 등 문화물질주의자(문화유물론자)들이 제시한 전쟁 이론에 의하면 한정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구압이 전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치부하였다. 그러나 고대 한국의 경우는 이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을 면밀히 보면 전쟁이 오히려 인구부족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전쟁이 발생하면 인구 획득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구는 문화물질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식량이나 재화의 소비자로서가 아니고 식량생산의 주체와 세금과 부역의 부과대상으로서 지배계급들의 부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카르네이로 등이 주장하는 전쟁이론은 국가 형성 이전에 부족간에 발생하는 전쟁의 원인을 다룬 것이다. 이에 비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전쟁의 원인은 국가 형성 이후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카르네이로 등의 전쟁이론을 비판하는 것은 국가 형성 이전의 이론을 토대로 국가 형성 이후의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문화물질주의자들이 인구압력을 전쟁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국가 형성 이전 단계이다.

수렵·채집민의 소집단이나 촌락사회는 영토를 정복하지 않으며 적을 예속시키지도 않는다. 관료조직이나 군사조직 및 법률제도와 같은 국가적 장치를 갖지 못한 그들로서는 해마다 세금 및 공물 징수와 같은 승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거둬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대량의 비축식량이나 그 밖의 값어치 있는 물건이 없는 조건이고 보면 '전리품'이래야 대수로울 것이 없다.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삼는다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들

5) Carneiro, Robert L., 1970. A Theory of the Origin of the State. Science 169: 733-738.

이 사는 사회란 자원의 바탕을 망가뜨리고 고갈시키지 않고서 생산을 강화할 방도라고는 없는 사회이고, 또 적대적이며 제대로 먹지 못한 노동력을 부려먹어 착취할 만한 조직능력도 갖고 있지 못했으니 말이다. 이런 모든 이유들로 해서 국가형성 이전 단계의 사회에서 전쟁의 승리자들은 전승기념품으로 머리가죽 벗긴 것 또는 목을 자른 머리 몇 개를 들고, 아니면 빈손으로, 오직 싸움에서 얼마나 사내답게 굴었는가를 자랑한 권리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비정주 수렵·채집민의 소집단 또는 촌락사회에서는 정치적 확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모든 면에서 인구 대 자원간의 바람직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모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sup>6)</sup>

즉 수렵·채집민의 소집단이나 촌락사회 등 국가형성 이전 단계에서는 인구압력이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국가 형성 이후 단계에까지 연장하여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2003년에 李仁哲,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위만조선·부여·고구려·신라·백제 등의 연맹왕국이 4~5세기에 이르러 국왕 중심 집권국가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원인을 군사력 집중에서 찾고 있다. 즉 연맹왕국의 군사조직은 대외전쟁이라는 외부집단과의 갈등으로 국가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전투의 승패에 따라 部 세력간에 균형이 파괴되며, 새로운 무기·무장의 개발과 그것의 생산과 공급을 왕권이 장악하게 되는 요인 등으로 인하여 국왕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갔다는 것이다. 한편 고대국가들은 주변 세력을 정복한 후에 처음에는 피정복민의 조직을 그대로 두고 공납과 군사적 협력만을 요구하는 정도에서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신라는 차츰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지배방식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소수의 세력이 넓은 지역을 정복하게 된 고구려는 지방관을

6) 마빈 헤리스, 『식인과 제왕』, 한길사, 1995, 66쪽.

비정복지역에 모두 파견할 수는 없어 간접지배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간접지배 방식은 영토를 빠르게 확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지만 또 빠르게 상실하게 하는 작용도 하였다고 한다. 즉 신라는 지역을 점령한 후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法幢·六停·十停 등의 군사조직을 배치하여 직접 지배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한강유역을 끝까지 고수하고 삼국통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2003년에 徐榮教, 「고구려의 對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 민족-安市城 전투와 薛延陀-」(『軍史』 49)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서북방의 제 민족이 고구려와 唐 사이의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떠한 변수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북방의 최강국 동돌궐이 해체되자 당에 투항한 10만에 달하는 돌궐인들은 당의 고구려 침공시 유목기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645년 당의 고구려 침공시 돌궐인들로 구성된 유목기병이 고구려군에 충격을 주는 망치라고 한다면, 한인으로 구성된 李勣의 장창보병은 모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당은 안시성 앞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한인보병과 유목기병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고 한다. 안시성 앞에서 당에 의해 중앙군 15만이 대파된 후 연개소문은 당의 유일한 적수인 서북방 초원에 있는 설연타를 움직여 당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즉 안시성 전투에서의 고구려군의 전과보다는 고구려의 외교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상황 변화가 당의 철수를 가져 왔다고 이 논문은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안시성 전투를 군사적인 측면보다 외교적인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안시성 전투에서 당의 대군을 격퇴시킨 고구려의 군사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4년에 徐榮教, 「고구려 기병과 鎧子」(『歷史學報』 181집)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머리말에서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가 어느 시기에 등자를 수용했고, 그것이 일반화되는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70년에 통구에 있는 장천 1호분이 공개되었

는데, 이 무덤 벽화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5세기 초·중반 경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장천 1호분 앞 칸 북벽의 수렵도에 등자를 한 기마 궁수 3명이 보이는데, 이것이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는 최초의 등자일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 수렵도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등자를 착용한 기마 궁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등자 수용 초기의 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등자가 일반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편 무용총과 쌍영총 벽화를 보면 기마 궁수들이 등자를 착용하고 있고, 이 벽화 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5세기 중후반에 가서 고구려에 등자가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등자의 등장은 이전보다 많은 수의 중장기병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양성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436년에서 462년까지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는데, 이 시기에 고구려의 대규모 기병 증강은 국가 생존을 위한 과제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농경민에게도 승마를 가능하게 하는 등자에 대한 수요가 이 시기에 증가했고, 등자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이라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2002년~2004년까지 삼국시기 군제 연구는 전쟁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고대국가의 군사조직, 고구려 후기의 군사편제 등에 대한 약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군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삼국 군제의 실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통일신라시기 군제 연구 동향

최근 3년 동안에 발표된 통일신라시기 군제 관련 연구는 2002년에 7편,<sup>7)</sup>

7) 徐榮教,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집, 2002; 徐榮教, 「나당전쟁의 개시와 그 배경-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歷史學報』 173, 2002. 3; 서영교, 「羅唐戰爭期

2003년에 2편<sup>8)</sup> 등 모두 9편으로 집계되는데, 특히 이 기간에는 徐榮敎 교수와 이현숙 교수의 연구 업적이 주목된다. 서영교 교수는 2002년에만 나당전쟁과 騎兵에 대하여 무려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현숙 교수는 전쟁과 전염병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우선 서 교수의 논문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서영교 교수는 2002년에 「나당전쟁의 개시와 그 배경—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歷史學報』 173집)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나당전쟁을 7세기 중반 서역을 포함한 국제전의 하나라고 보고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와 나당전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당 태종은 동쪽의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하여 서쪽의 토번과 평화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고 한다. 이에 641년 당 황실의 문성공주와 토번왕과의 결혼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당의 발달된 문화가 토번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650년 토번왕 송첸칸포의 죽음과 함께 武將 錄東贊이 권력을 장악하고 660년 당의 소정방이 백제를 치는 것을 기회로 토욕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녹동찬의 아들들인 欽陵 형제들이 669년 천산남로를 급습하여 실크로드를 석권하자, 당은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新城으로 옮기고, 670년 4월 唐將 설인귀를 대토번전에 투입하였다고 한다. 이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상당수의 병력도 서역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에 신라는 당의 힘이 한반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나당전쟁에 돌입하였다는 것이다. 나당전쟁은 신라가 주체적으로 치른 전쟁인데, 이 논문은 신라를 전쟁의 객체로 취급한 감이 있다.

2002년에 발표한 서영교, 「羅唐戰爭과 吐蕃」(『東洋史學研究』 79집) 역시

당병법의 導入과 그 意義, 『韓國史研究』 116, 2002. 3; 서영교, 「신라 통일기 기병증설의 기반」, 『역사와 현실』 45, 2002; 서영교, 「장보고의 기병과 서남해안의 목장」, 『震檀學報』 94, 2002; 서영교, 「나당전쟁기 石門전투」, 『東國史學』 38, 2002; 鄭淸柱, 「甄萱의 豪族政策」, 『전남사학』 19, 2002.

8) 이현숙,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 2003; 이현숙, 「몸, 질병, 권력: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6, 2003. 2.

위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나당전쟁의 기원·발발·휴전 등 모든 과정이 당시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나당전쟁과 토변과의 관계를 살핀 것이다. 즉 이 논문에서는 669년 9월 토변이 천산남로를 급습하자 670년 4월 설인귀가 이끄는 한반도 주둔 병력이 청해에 투입되었고, 이에 670년 3월 신라군은 압록강 이북까지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670년 7월 청해 지역에서 설인귀가 이끄는 당군이 전멸당하자, 그 해 같은 달에 신라는 백제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672년 4월 토변의 사절이 장안에 도착하여 당 고종을 접견하면서 협상을 진행시키자, 같은 해 8월 唐將 高侃이 이끄는 정예기병이 황해도 서흥[石門]에서 신라 중앙군단을 거의 전멸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또다시 673년 12월 토변이 弓月 등 천산지역의 서투르크 제 부족을 총동하여 천산북로를 봉쇄하려 하자, 나당전쟁은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675년 1월에 토변의 사절이 장안에 와서 평화회담을 진행시키자, 그 해 2월에 당군은 한반도에 재침해왔고, 유인귀가 이끄는 당군은 임진강 이남까지 남하하여 칠중성을 대파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매소성까지 장악했다고 한다. 그리고 676년 토변의 내분을 이용하여 당 고종이 총공세를 가하면서 나당전쟁은 무기한 휴전상태로 돌입했다고 한다. 이 논문은 나당전쟁의 전개과정을 주로 토변과 당의 관계 변화로 설명하고 신라는 도외시된 감이 있다. 나당전쟁에서 당을 몰아낸 신라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02년에는 또 서영교, 「羅唐戰爭期 당병법의 導入과 그 意義」(『韓國史研究』 116집)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三國史記』 권 7, 文武王 14년(674) 9월조의 “문무왕이 영묘사 앞길에서 군대를 사열하고 薛秀眞의 六陣兵法를 직접 관람하였다”는 기록은 신라의 새로운 진법 도입을 전해주는 것으로 주목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설수진의 육진병법은 당나라 李靖의 六花陣法을 도입하여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정의 육화진법, 특히 그 集團規律과 步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李靖은 步法을 바둑판의 눈금에 비유하고 있다. 그것은 동작을 분해하여 적정 속도에 의거하여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기초이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기 步法 훈련은 신체의 운동을 눈금처럼 분할하고 통제하는 규율을 병사들에게 體化시키는 작업이다. 여기서 규율이란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는 것이며,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의 과정에 주목하여 신체 운동을 바둑판의 눈금처럼 분할하는 것이다. 군인이 얼마나 용기와 힘을 지닌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조직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부과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개인적 기예와 상관없이 있는 것이다. 규율은 단체적 훈련을 통해 숙달되는 기계적 단결이다.<sup>9)</sup>

이러한 이정의 육화진법을 수용하여 만든 신라의 육진병법은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군사 운영체계라고 한다. 즉 인간을 복종의 굴레에 묶어 놓은 선진 군사기술 육진병법의 도입 없이는 非 신라계가 2/3를 차지하는 구서당 완성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근대 규율은 신라의 규율이라기보다는 근대적인 규율로 생각된다. 통일신라 당시에 군인들의 신체운동을 바둑판의 눈금처럼 분할하는 진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sup>10)</sup> 한편 이 논문에서는 군인의 용기와 힘은 중요하지 않고, 조직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화약 병기가 등장한 근대 이후의 군대의 모습이지, 통일신라 당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 2002년에 서영교, 「신라 통일기 기병증설의 기반」(『역사와 현실』 45)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무관조의 기록을 근거로 삼아 신라 기병군관의 증강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진흥왕 5년(544) 당시 십정의 기병

9) 서영교, 「羅唐戰爭期 당병법의 導入과 그 意義」, 『韓國史研究』 116, 2002, 59쪽.

10)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군인 각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들의 동작을 획일화하는 것이 근대 사회에 이룩된 중요한 변화로 지적하고 있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참조.

군관은 35인에 불과하였는데, 진평왕 13년(591)에 기병부대 四千幢이 창설되어 기병군관 6명이 더 증강되었고, 태종 무열왕 원년(654)에는 屬衿幢을 창설하여 21명이 더 추가되었다고 한다. 그 후 문무왕 12년(672)에 창설된 기병부대 오주서의 군관 수는 총 67명으로 십정 35인, 사천당 6인, 계금당 21인을 모두 합친 61인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문왕대 완성된 구서당의 기병 증강은 더욱 급진적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672년 이후의 신라의 급진적인 기병 증강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라국왕이 전쟁승리의 결실인 목장을 왕실·관·진골귀족들에게 재분배하여 말을 생산하고 훈련시키게 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라 전 국토에는 통일기에 급진적으로 증강된 오주서, 십정 등의 기병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기병을 유지하기 위한 말 사육 역시 신라 전 국토에 있는 신라 일반 촌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신라 촌락 문서에서 각 촌락당 말의 소유가 과다하게 기재된 이유라고 한다. 통일 후 신라의 대규모 기병 증강과 목장의 확대, 그리고 촌락의 馬 사육은 서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삼국통일 이후 기병 증강을 급진적으로 시행하고, 촌민들에게 말 사육을 강요하면서 군비를 증강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삼국통일 이후 신라 정부는 문무왕이 “병기를 녹여 농기를 만들라(鑄兵戈爲農器)”<sup>11)</sup>는 遺詔를 내릴 정도로 전쟁 분위기를 해소하고 평화 정착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필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요구된다 하겠다.

2002년에 서영교, 「장보고의 기병과 서남해안의 목장」(『震檀學報』 94집)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839년 달구벌 전투에서 10만의 정부군이 수적인 절대 우세에도 불구하고 장보고의 5천 강병에게 괴멸된 사건에 주목하고 장보고의 기병 육성과 서남해안의 목장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장보고는 일찍부터 기병의 위력을 인식하였고, 귀국해서 기병단을 창설했다 한다. 이것은 그가 서주절도사 牙軍에서 창기병부대를 지휘한 경

11)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下 21년.

힘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장보고의 기병단 창설·조직은 말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말의 구입처는 완도 앞 다도해에 있는 진골귀족들의 목장이었고, 장보고의 외국산 사치품은 진골귀족의 말과 상호 교환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장보고가 그의 말을 먹이고, 그의 병력을 부양하는 데는 상당한 곡물이 있어야 했는데 서남해안에 있는 진골귀족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상당량이 그들의 사치품 구입대금으로 사용되면서 청해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신라 지배층의 풍요로운 사치품 소비는 장보고의 무력적 기반을 부양하고 정예화시키는데 필요한 원활한 재원조달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보고의 무력적 기반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었다고 한다.

2002년에 정청주, 「甄萱의 豪族政策」(『전남사학』 19)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견훤의 호족정책의 성격과 그 실상에 대하여 연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훤은 신라의 중앙군이 되었다가 서남해의 防戍軍으로 파견되어 독립 부대의 지휘관으로 출세한 군인출신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는 군사력에 의존하여 정권을 운영하였고, 궁예나 왕건과는 달리 호족연합 정책보다는 군사적 정복에 의하여 호족을 복속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견훤의 군사적 정복이 인민이나 곡식을 약탈하는 방식으로까지 전개되자 호족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견훤은 호족의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즉 군사적 정복에 의하여 호족을 복속하고자 한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930년 고창전투에서 대패하였고, 이후 후삼국 쟁패전의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주장하고 나서 “호족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 것, 즉 호족의 向背를 자기에게 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는데, 견훤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인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견훤을 군인출신으로 규정하고 그 한계를 논하고 있는데 왕건 역시 군인출신이라고 생각된다. 왕건도 궁예 밑에서 군인으로 성장하고 출세한 것이다. 즉 출신

을 가지고 어떤 한계를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03년에 이현숙,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역사와 현실』 47)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사 연구에서 도외시되었던 전쟁과 전염병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를 신라 통일기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7세기 중엽, 신라가 주도한 통일전쟁은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한 것으로 이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이 미쳤을 영향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전쟁이 장기화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한다. 660년 7월 대백제전에서 일주일만에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왕을 비롯한 대소 신료들을 당으로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백제 부흥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한다. 이것은 나·당연합군, 특히 신라군에게 퍼진 전염병으로 인해 전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나·당연합군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라와 당은 서로의 의학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한다. 셋째, 전쟁기간 중 한반도에서 유행하던 전염병은 신라 집권층이 공공 의료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다. 넷째, 대민의료 정책을 이끌어갈 의료관료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주도의 의학 교육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한다. 이상의 네 가지를 필자는 삼국통일전쟁 당시 전염병이 미친 영향으로 들고 있다.

이어 2003년에 이현숙, 「몸, 질병, 권력: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역사와 문화』 6)도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노동력 징발을 위하여 국가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몸을 분류하고 관리했는가 하는 점을 신라의 군역과 군진의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신라의 군역은 15~60세까지의 양인 남성에게 부과되었는데, 국가 권력은 양인의 노동력 상실 정도를 잔질·폐질·독질 등으로 구분하여, 가장 경미한 편인 잔질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인력으로 편제하였다 한다. 그리고 폐질과 독질은 각종 역의 면제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왕권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구휼 대상이기도 했다고 한

다. 한편 군대 내에서 최하층 계급인 병사는 주로 중노동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권력은 일찍부터 농민의 몸을 선호했다 한다. 그리고 병사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은 식중독이나 장티푸스·이질과 같은 음식을 통한 각종 감염증, 무좀이나 음 그리고 고름이 나오는 각종 전염성 피부병, 성병 등이었다 한다. 이에 대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신라의 군진의학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한다. 이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약재를 위주로 한 군진의학은 종전 후 민간에서 사용하기 쉬운 치료법 위주의 대중 의학이 발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2002년~2004년까지 통일신라시기 군제 연구는 서영교 교수의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전쟁과 질병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서교수의 연구는 나당전쟁을 주로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신라의 주체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역사는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인다. 따라서 신라의 시각에서 나·당전쟁을 보는 것이 ‘한국사’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4. 고려시기 군제 연구 동향

최근 3년 동안에 발표된 고려시기 군제 관련 연구는 2002년에 11편,<sup>12)</sup>

12) 전경숙, 「고려초의 순군부」, 『한국중세사연구』 14, 2002; 金洛珍, 「高麗初期의 內軍과 禁軍」, 『歷史學報』 176, 2002. 12; 김아네스, 「고려초기의 都護府와 都督府」, 『歷史學報』 116, 2002. 3; 윤훈표, 「高麗時代 軍律의 構造와 그 性格」, 『사학연구』 69, 2002; 박진훈, 「고려시대 개경 치안기구의 기능과 변천」, 『한국사론』 33, 국사편찬위원회, 2002; 김대중, 「崔忠獻政權의 군사적 기반 -京軍·都房·別抄軍을 중심으로-」, 『軍史』 47, 2002; 이상국, 「고려후기 ‘本主’의 의미와 立戶充役」, 『역사와 현실』 46, 2002; 김난옥, 「고려후기 烽卒의 신분」, 『韓國史學報』 13, 2002; 洪榮義, 「高麗末 軍制改編案의 基本方向과

2003년에 7편<sup>13)</sup>으로 2004년에는 아직 한편도 없다. 이 중 저서는 1편이고, 나머지 17편은 논문이다. 2002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우선 전경숙, 「고려초의 순군부」(『한국중세사연구』 14)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에서는 순군부가 처음에는 궁예가 청주인의 徙民을 위해 설치한 기구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순군부는 고려 태조대에 이르러 丞-卿-郎中-史의 관리를 갖춘 조직으로 정비되었으며, 관리들은 대부분 패서지역과 진천·충주 출신으로 文士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태조는 철원에서 즉위한 후 서경을 도읍으로 선정하고 순군부 관리들을 패서지역에 파견하여 군인을 징발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순군부를 통한 군인의 징발을 통해 태조는 일리천 전투에서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순군부는 성종 때 군사제도가 2군 6위로 정착되어 전업군인과 번상군인이 고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쓸모없게 되자 폐지되었는데, 거란의 침략 이후 군사 징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자 選軍給田을 주 업무로 하는 選軍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고려 초의 순군부를 군인의 모집·징발과 관련된 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순군부에 대한 사료가 매우 적은 관계로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군부를 군인의 모집·징발과 관련된 기구로 보는 연구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순군부를 다룬 선행 연구에 대한 충분한 소개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도 결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2년에는 金洛珍, 「高麗初期의 內軍과 禁軍」(『歷史學報』 176)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內軍은 태조가 후백제와의 전투를 위해

性格-恭愍王·禑王代를 中心으로-, 『軍史』 45, 2002.

13) 전경숙, 「고려 전기의 兵部」, 『속명한국사론』 3호, 2003;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2003; 宋容德, 「高麗前期 國境地帶의 州鎮城編制」, 서울대 석사논문, 2003; 李相國, 「高麗時代 軍役差定과 軍人田」, 『한국중세사연구』 15, 2003; 閔賢九, 「高麗 武臣政權의 정치적 유산」, 『仁荷史學』 10, 2003; 백남혁, 「武臣亂의 原因과 成功要因」, 『祥明史學』 8·9, 2003; 尹薰杓, 「麗末鮮初 軍法の 運營體系와 改編案」, 『韓國思想史學』 21집, 2003.

편성한 부대 가운데 馬軍과 함께 中軍에 속한 3軍(祐天軍, 杆天軍, 天武軍)에 소속된 부대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군은 궁예왕 시절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태조는 즉위하면서 내군에 卿을 설치하고, 자신의 친위세력인 衛士를 내군에 배치하였다 한다. 이어 내군은 광종대에 들어서면서 왕권 강화 정책에 따라 掌衛部로 확대 개편되었다 한다. 그런데 성종대에 들어서 2군 6위의 성립 등 군사조직 개편이 추진되었는데, 이때 內軍의 규모와 위상이 축소되었다 한다. 2군이 성립된 뒤에는 기존에 內軍이 맡았던 역할까지도 2군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점차 2군이 약화되면서 금군이 다시 출현하였는데, 中禁軍이 그것이라 한다. 2군 6위의 경군은 고려 중기로 가면서 병역을 채울 수 없게 되어 부실화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2군의 부실화와 짝하여 점차 새로운 금군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전시체제와 평시체제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조가 후백제와의 전투를 위해 편성한 부대는 평시체제가 아니라 전시체제이다. 따라서 이때 3軍(祐天軍, 杆天軍, 天武軍)은 전시 행군 조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시의 내군과 곧바로 연결될 수 없다고 본다.

2002년에 김아네스, 「고려초기의 都護府와 都督府」(『歷史學報』 116)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고려 초기의 도호와 도독은 성종대 州牧을 파견하기 이전까지 지방의 거점에서 활동하였다 한다. 특히 후삼국 통일전쟁기에 도호부와 도독부는 군사적인 거점에 설치되었는데, 고려는 새로이 정복한 지역에 도호부를 두고 주변으로 영토를 넓히는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도독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물자를 거두어서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이룩한 뒤에는 도호부와 도독부가 지방 행정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도호와 도독은 長吏로 대표되는 지방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다. 그리고 州牧을 파견한 성종대 이후에는 국방을 위한 중요 지역에 도호부가 남게 되었고, 계수관으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002년에 윤훈표, 「高麗時代 軍律의 構造와 그 性格」(『사학연구』 69)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고려 군율은 현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遼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동원된 엄청난 병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이 때의 군율은 杖脊 15, 杖脊 20, 斬에 이르는 3단계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률인 5刑制와는 달랐다고 한다. 이는 신속하고도 엄중한 처벌을 단행하여 그 시행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의 군율은 송의 군율에 비해 훨씬 관대한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체통이 제대로 유지된 것은 군인전 분급을 전제로 田制와 軍役制를 결합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사회변동과 더불어 변모해 가던 군율의 운영양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던 계기는 무신정권의 수립과 몽골과의 장기전 등이었다고 한다. 이때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통치체계까지 혼란에 빠졌다 한다. 한편 원 간섭기에 이르러서는 軍民無別을 공식적으로 언명하면서 군율을 별도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졌는데, 군율의 시행이 다시 거론된 것은 공민왕대에 들어와서라고 한다. 왜적을 방어하지 못한 按廉使 이하를 군법으로 다스리게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2002년에 박진훈, 「고려시대 개경 치안기구의 기능과 변천」(『한국사론』 33, 국사편찬위원회)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開京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태조 왕건은 개경으로 천도한 이후 內軍을 통하여 치안을 유지하였다 한다. 이에 내군은 국왕 친위군으로서의 역할과 개경의 치안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광종대에 크게 확장되어 掌衛部로 개편되었다 한다. 그런데 성종 14년에 6위 체제가 완성되면서 內軍도 衛尉寺로 개칭되면서 단지 儀物·器械만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한다. 그러면서 도성의 방어와 국왕의 친위군의 역할은 6衛, 병기 제작의 기능은 軍器寺,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야간의 순찰활동을 비롯한 도성의 순찰 및 치안유지·질서유지 기능은 巡檢이 설치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한다. 그 후 의종대에는 새로운 도성 치안유지 조직이자 경호조직인 內巡檢軍이 창설되었는데, 내순검

군은 국왕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최측근 경호부대이고, 특별한 경제적·정치적 대우를 받으면서 국왕에게 직접 통솔되었다 한다. 그러나 무인정변 발생 이후 순검군은 위축되고 허소화되어,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고려 정부는 몽골의 제도를 모방하여 巡馬所를 설치하였다 한다. 순마소는 巡軍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들은 권력을 배경으로 사적인 재원과 경제기반의 확보에 주력하게 되어 田庄을 경영하고 人民을 影占하여 이를 확대해 나갔다 한다. 이후 순군부는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도성의 치안유지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핵심기관으로 기능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내순검군이 국왕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최측근 경호부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순검군 관련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 『고려사』에서 내순검군 관련 사료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의종 21년 정월에 있는 내순검군 설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乙卯 屯府兵于闕庭 以備不測 自是選取勇力者 號內巡檢 分爲兩番 常着紫衣持弓劍 分立仗外<sup>14)</sup>

즉 을묘일에 府兵을 대궐 뜰에 주둔시켜 만일에 대비하게 하고, 또 용감하고 힘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內巡檢이라 이름 붙이고 兩番으로 나뉘어 항상 자색 옷을 입고 활과 검으로 무장시켜 仗外에 나누어 서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仗이란 국왕의 호위를 뜻하는 말이니, 仗外란 국왕의 호위 외곽(대궐 바깥)을 말하는 것이다. 즉 부병은 대궐 뜰에 주둔하고 있고, 내순검군은 대궐 바깥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순검군을 가지고 국왕의 최측근 경호부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sup>15)</sup>

14) 『高麗史』 권18, 世家, 毅宗 21년 正月 乙卯.

15) 府兵은 전원 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內巡檢軍은 농민명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 『高麗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 73집, 87쪽 참조.

2002년에는 김대중, 「崔忠獻政權의 군사적 기반—京軍·都房·別抄軍을 중심으로—」(『軍史』 47)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종래 최충헌이 정권의 연명을 위해 門客이나 私兵을 강화시키고 국군인 경군은 약하게 만들었다는 설을 반박하면서 실제 최충헌의 문객 강화가 경군의 약화를 초래하여 고려의 몰락을 불러들였다면, 그의 집권은 그에게서조차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논문은 최충헌의 군사정책을 재조명하여, 최충헌은 당시 고려의 국방에 대하여 작은 문제는 각 지역의 군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또 최충헌은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경주의 도처에 돈대를 설치하였다 한다. 그리고 최충헌은 불의의 변고에 대비하기 위해 都房을 설치하였고, 별초군을 양성하였다 한다. 이 논문은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최충헌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눈에 띈다.

2002년에 이상국, 「고려후기 ‘本主’의 의미와 立戶充役」(『역사와 현실』 46)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전시과 제도 이후 성립·정비된 토지 분급의 원칙은 직역에 따른 토지의 지급이었는데, 이를 위해 국가는 전국의 토지를 군현 단위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는 都田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직역 담당층은 각 군현의 도전정의 수에 따라 설정되고, 호를 단위로 하였는데 이를 立戶充役이라 한다. 입호충역의 立戶는 土地+丁口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충역은 이를 통해 구성된 정호가 담당하였다 한다. 정호는 토지+丁口를 구성요소로 하는 직역 대상자 혹은 단위 개념으로 사료상에 보인다 한다. 이 중 丁口에 해당하는 존재로 백정이 확인되는데, 백정은 호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호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한다. 즉 이들은 직역자로 파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백정이 역역이나 군역에 차정되는 것은 정호에 편재된 공민이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정구에 해당하는 존재로는 장획이나 전호, 족류, 인호, 양호 등이 확인된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2002년에 김난옥, 「고려후기 烽卒의 신분」(『韓國史學報』 13)이 발표되었

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고려시대 烽燧式은 의종대에 정비되었는데, 봉수는 야화주연을 긴급한 정도에 따라 1~4회까지 올렸으며, 봉수대에는 장교·군인·防丁·백정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한다. 한편 烽卒은 형벌과 관련이 있는데, 군사 지휘자나 책임자가 외적과의 전투, 관할지역의 경비 등에 중요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 봉졸이 되었으며, 정치적 변동이나 세력 다툼에 의해 봉졸로 編配되기도 하였다 한다. 이때 처벌로 봉졸이 된 대상은 주로 관직자나 그 자손이었다고 한다. 烽卒編配는 ‘일반인’이 아닌 ‘지배계층’에 부과된 형벌이었다는 것이다. 형벌체계 내에서 廢爲庶人, 歸鄉刑, 放歸田里, 杖流 등과 견주어 본 결과, ‘봉졸편배’는 이들보다 무거운 처벌이었다 한다. 또 봉졸의 신분적 위치는 백정농민보다 낮은 賤役良人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2002년에 洪榮義, 「高麗末 軍制改編案의 基本方向과 性格—恭愍王·禡王代를 中心으로—」(『軍史』 45)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공민왕과 우왕대에 제시된 군제 개편안에 주목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후 시기와 이어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말 군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병농일치를 기반으로 하는 2군 6위 중심의 고려전기 군제로의 복구였다고 한다. 중앙군제는 2군 6위의 재정비와 함께 중앙군의 지휘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특히 都統使—元帥로 이어지는 將帥 중심체제로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한다. 지방군제는 都巡問使 체제로 유지하는 한편,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翼軍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다. 군역체제의 정비와 변화는 助役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 전기의 군호제를 회복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군인전의 확보와 둔전 경영의 확대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한다. 한편 군제 개편안을 제기한 주도층의 경우, 『高麗史』 兵志와 列傳을 정리한 결과 공민왕·우왕대의 군제 개편안을 제기한 인물은 총 21인이었다 한다. 이들은 주로 신흥사대부 내의 온건계열로 파악되는데, 군제 개편안의 내용도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 268쪽에는 ‘공민왕 5년 7월에는 왕실 호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忠勇衛를 설치하여 4천명의 병력이 소속되도록 하였는데, 2군 6위만 약화시켰을 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여 동왕 10년 흉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안동으로 피난할 때 충용위 군사로서 왕을 호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였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충용위에는 4천명의 병력이 소속된 것이 아니라, 300명의 무관만이 소속된 곳이었다. 이는 『고려사』 병지 1, 병제, 공민왕 5년 11월조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置忠勇四衛 衛各置將軍一人 中郎將·郎將 各二人 別將·散員 各五人 尉長 二十人 隊長 四十人<sup>16)</sup>

이라 하여, 충용위는 4위가 있었는데 각 위에는 장군 1인, 중랑장·낭장 각 2인, 별장·산원 각 5인, 위장 20인, 대장 40인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충용위는 1개의 위에 75명의 무관이 소속되어 4위의 총 인원이 300명에 불과한 군사조직인 것이다. 이것은 위 사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공민왕 7년 5월조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민왕 7년 5월 倭가 침입하여 喬桐을 불사르자 경성이 계엄 상태에 들어가고 군사를 출동시켰는데 교동에는 30인, 저강, 적구, 후석 등에는 충용위 90인과 45인 등 모두 합쳐 165명을 보내고 있다.<sup>17)</sup> 국가가 계엄 상태에 들어가고 총동원령이 내려졌는데, 신설 군대인 충용위에서 총 165명이 출동한 것이다. 이것은 충용위가 300명 정도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충용위가 4위

16) 『高麗史』 81, 志 35, 兵 1, 兵制. 恭愍王 5년 11월.

17) 『高麗史』 81, 志 35, 兵 1, 兵制. 恭愍王 7년 5월. 倭焚喬桐 京城戒嚴 發忽只四番 各十五人 忠勇衛 左右前三番 各十人 赴喬桐 又發忠勇衛 三番 各三十人 阿加赤 三番 各十人 波吾赤 三番 各十人 忠勇衛 三番 各十五人 譯語 各五人 赴阻江·赤口·朽石等處 發五部坊里 成衆愛馬 鰥寡外 正軍五百人 赴西江·赤江等處 又以城門修理五都監·判官等 爲倭賊防禦兵馬判官 各率坊里兵 五百人 赴之.

로 구성되어 있으니 군액은 4,000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관 조직 이외에 그 아래에 농민병 4,000명이 소속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군 6위의 부병 조직은 무관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즉 고려는 무관을 중심으로 중앙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고려 말에는 이러한 부병 조직이 붕괴되었고, 이 시기 군제 개편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러한 부병 조직의 복구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고려말 군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병농일치를 기반으로 하는 2군 6위 중심의 고려전기 군제로의 복구였다”라는 표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3년에 전경숙, 「고려 전기의 兵部」(『숙명한국사론』 3호)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고려전기 兵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 운영에 관해 살펴보았다.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부는 武選·軍務·儀衛·郵驛之政을 관장하였다 한다. 武選은 무관들의 인사에 관계된 것으로, 병부는 인사자료인 정안을 작성·관리하고, 이것을 토대로 무관들을 평가하여 陞黜 대상자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한다. 軍務는 군액의 파악과 축성·둔전에 대한 업무였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군액의 파악으로 이는 선군도감과의 연계하에 이루어졌다 한다. 儀衛는 국내 외적 행사에 왕을 보호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의장대와 의장 무기에 대한 관리를 말하며, 郵驛은 站驛과 馬政을 포괄한 업무로서 군사적 변란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정확한 군사적 연락과 군사력 동원을 하는 것이었다 한다. 즉 병부는 군사관련 기밀문서를 총 관리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군사 업무를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군정기관이었다 한다. 이러한 병부의 업무는 군통수권에 있어서 발병권의 성격을 띠는데, 이는 중추원의 주요 권한이었다 한다. 이렇게 볼 때 고려는 중추원을 중심으로 병부와 선군도감이 양립되어 있는 체제로 발병권을 운영하였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그런데 병부는 軍政 기관으로 發兵權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발병권은 軍令 기관인 중추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군도감은 武選과 관련된 기관으로 이것 역시 발병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

관으로 생각된다.

2003년에는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경인문화사, 2003)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고려-거란 전쟁사 연구』라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정리하여 출간한 것으로서, 고려·거란 전쟁을 제1장 10세기 동북아시아 정세, 제2장 전쟁 수행 여건, 제3장 제1차 전쟁, 제4장 제2차 전쟁, 제5장 제3차~제6차 전쟁, 제6장 전쟁 종결과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거란 전쟁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컬러로 된 지도와 사진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고려·거란 전쟁을 6차까지 세분화하고, 제1차 전쟁에서 거란이 80만 대군으로 침공했다는 통설에 대하여, 『遼史』, 兵衛志의 ‘不命都統 止遣騎兵六萬’이라는 사료를 근거로 도통이 아닌 소손녕이 이끈 군대는 최대 6만명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거란의 병제에 대하여도 소개를 곁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전쟁사에 치중하여 고려와 거란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으나 고려의 군제에 대한 소개는 미흡한 감이 있다.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요인으로 고려 군제의 우수성을 꼽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2003년에 宋容德, 「高麗前期 國境地帶의 州鎮城編制」(서울대 석사논문)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고려는 국제정세에 따라 유연하게 州鎮城 편제를 새롭게 조직하면서 신개척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다. 즉 고려는 이미 구축된 주진성을 기반으로 신개척지에 별도의 주진성을 축조하고 그 주진성 주변에 새롭게 주진성 편제를 구축함으로써 북진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 국초에는 각 주진성에 外官을 파견하여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다. 그리고 성종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외관이 파견되었고 현지민을 중심으로 하는 방수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때 대외적으로 주진성 편제의 운영방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한다. 즉 서북지역에서 來投人들을 송환하기 시작하고 先住 여진인들을 攻逐하면서 化內 여진촌

構築을 배제한 채 주진성을 축조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성종대의 정책은 목종, 현종대를 거치면서 내투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化內 여진촌을 구축하는 종래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한다. 그러나 거란과의 전쟁이 연속되자 대규모의 전사자, 전쟁 포로가 발생하여 주진성 편제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이 가중되었고, 성곽 파괴와 거란의 압록강 이동 지역의 점거로 군사적 거점을 재편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한다. 이에 德宗이 즉위하면서 고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체제 변화를 모색하였다 한다. 즉 고려는 압록강 하구지역으로부터 長城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關防의 설치라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축성된 장성은 고려의 국경편제 방식을 境界帶의 성격이 강한 주진성 편제에서 境界線的인 장성편제로 전환시켰다 한다. 장성이 구축되자 장성을 중심으로 內地, 外地로 구분하는 인식이 심화되었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의 국경은 金 건국 후 본격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새롭게 규정되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2003년에 李相國, 「高麗時代 軍役差定과 軍人田」(『한국중세사연구』 15)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머리말에서 군역을 통한 국가의 對民 파악 방식의 일단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군역의 차정과 연립, 군호의 구성요소, 군인전의 분급 규모와 군호의 편제규모 등을 고찰하였다고 한다.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군역과 잡역의 수취를 위해 그 대상자들을 일정 단위로 편제하였는데, 그 단위가 軍戶였다 한다. 군호는 직역 차정의 원칙인 ‘立戶充役’을 통해 편제되었으며, 군호의 구성 요소는 養戶, 佃戶, 族類나 隣保 등이었다 한다. 군역의 연립은 군호를 구성하는 양호, 전호, 족류, 인보 등을 일정한 단위의 인정 수를 바탕으로 편제하여 군호를 세우고[立戶], 군호 가운데 군인으로 차정되는 자가 군역을 담당하고, 그 이외의 구성요소가 잡역을 담당하였다[充役] 한다. 군호에 지급된 군인전은 二軍은 1족정=17결의 토지를, 六衛는 반정의 토지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통해 군인전의 분급결수는 40만결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려시기 군사제도와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들에서는 군인전을 일률적으로 군역을 부담하는 농민, 즉 丁戶가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토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인전은 정호 출신의 군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전에게는 두 가지 계통의 것이 존재한다. 무반에게 지급하는 토지와 의무군역을 부담하는 정호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모두 군인전이라고 했던 것이다. 무반에게 지급되는 군인전은 수조지이고, 정호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지이다. 따라서 군인전에 관하여 연구할 때는 사료에서 말하고 있는 군인전이 어느 군인전을 지칭하는가를 엄밀히 구분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사료상에 나타나는 군인전을 모두 정호 출신 군인의 토지로 간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논문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다음 A, B 사료의 군인전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 A. 예종 3년(1108) 2월 制하기를, “근래 州縣官이 다만 宮院田과 朝家田만을 사람을 시켜 경작케 하고 군인전은 비록 비옥한 땅이라도 농사를 힘써 장려하지 않으며, 또한 養戶로 하여금 곡식을 운반하게 하지도 않는다. ……”고 하였다.<sup>18)</sup>
- B. 국가에서 田 17結로써 1족정을 삼아 軍 1정에게 지급하는 것은 옛날 田賦의 遺法이다.<sup>19)</sup>

A 사료에서 말하고 있는 군인전은 궁원전이나 조가전과 같은 수조지이고, B 사료에서 말하고 있는 군인전은 농민의 소유지 17결마다 1족정으로 묶어 군인 1정을 내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군인전이다. 양호가 곡식을 운반하는 A 사료의 군인전은 수조지이고, 田賦로 간주되는 B 사료의 17결 군인전은 소유지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군인전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군인전을

18) 『高麗史』 권79, 食貨 2, 農桑. 睿宗 3년 2월.

19) 『高麗史』 권81, 兵 1, 兵制, 恭愍王 5년 6월.

엄밀히 가르고 연구한다면, 연구 결과는 본 논문의 결론과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에는 백남혁, 「武臣亂의 原因과 成功要因」(『祥明史學』 8·9)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父王과 신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의종은 격구를 통해 무인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대간세력을 제압하는데 활용하였다 한다. 이 과정에서 정중부 등의 견룡군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권력 지향적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한다. 한편 의종 5년부터는 정함·김존중 등이 의종의 측근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간관세력과의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 한다. 그러나 의종 11년에 이르면 정함의 고신에 간관이 서명할 정도로 간관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었다 한다. 이후 환관 및 내시세력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부패와 토목공사 성행 및 의종의 별궁, 정자 등의 빈번한 행차로 백성 및 군졸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한다. 간관 기능의 약화는 사회 정화 기능을 약화시켜, 백성 및 군졸의 고통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간관 기능의 약화가 무신란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2003년에 閔賢九, 「高麗 武臣政權의 정치적 유산」(『仁荷史學』 10)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지금껏 고려 武臣亂과 武臣政權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무신란과 무신정권이 고려사를 통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무신정권의 정치적 유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무신정권기에 이룩된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와 변혁은 고려사회에 커다란 자극을 주면서 무신정권 그 자체의 추이와 뒷날의 역사에 큰 작용을 했다고 주장한다. 무신정권은 폭압적인 武力을 기반으로 하였고, 따라서 군사력, 특히 사병의 보유가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군대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정체로 대두한 것이 바로 삼별초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국 고려 중앙군의 약화와 무신정권의 고립을 초래했고, 끝내 삼별초의 敗沒로 고려의 군사적 전통이 장기간 단절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한다. 또한 무신정권의 붕괴로 무신집정체제는 소멸했으나, 무신유력자로부터 興起하여 새로운 권문세족을 탄생시킨 경우도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무신정권기에 독자적 정치기구로 형성된 政房은 고려의 국가기구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한편 무신정권기를 통해 독자적인 兵書 편찬이나 새로운 병기 개발, 또는 두드러진 무술 연마의 움직임에 알려주는 자료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 볼 대목이라 한다. 오히려 고려 전기, 문기 지배체제 아래에서 武藝가 중시되고 武備가 강화되는 상황을 말해주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는데 반해 무신정권기에는 문인들의 활약과 화려한 詩會를 알려주는 사료가 유난히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신의 집권을 통해 무신정권이 수립될 수 있었으나, 정작 武를 숭상하고 武를 발전시키고 武의 문화를 창달함으로써 고려 사회 속에 武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지향은 매우 미미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3년에 尹薰杓, 「麗末鮮初 軍法の 運營體系와 改編案」, (『韓國思想史學』 21집)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원 간섭기에 들어와 고려 전기에 제정된 군법운영체계가 마비되었는데, 공민왕이 반원 개혁정치를 추진하면서 독자적으로 군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한다. 그러나 반원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몽골식 지휘통솔체계가 여전히 잔존하여 군통수체계의 동요 현상과 결부되어 군법운영체계가 혼란하였다고 한다. 위화도 회군 이후 정국을 주도했던 급진개혁파 사대부들은 군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어난 혼란 및 그에 따른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개편안을 제기하였다 한다. 우선 군법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은 『대명률』을 채택해서 활용하였다 한다. 다음으로 운영 절차 및 과정은 군인들이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공평한 군법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고 한다. 조선건국 직후 군사 분야에 대한 개편작업은 정도전이 주도하였고, 왕자의 난 이후에는 태종계열이 추진하였는데, 태종계열은 사병적인 통솔체계의 해체라는 점에서는 정도전 등과 방향이 같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고 한다. 마침내 정종 2년의 사병 혁파를 계기로

의흥삼군부의 판사직을 겸한 재상이 大司馬가 되어 병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장악하되, 더불어 국왕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發兵을 맡은 摠制들과 掌兵을 책임진 護軍들이 마치 피라미드 같은 형태로 포진되는 통수체계를 확립시키려 했다 한다. 이와 더불어 군법운영체계도 수정하여 태조 때 『경제육전』을 편찬하면서 법제화했던 계급법을 다시 부활하고, 전šina 정변이 아니고 훈련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을 위반하면 비록 재상이라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종전의 군법운영체계와는 다른 변모를 보여주었다 한다. 그러한 점들은 국왕의 통수권 장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2002년~2004년까지 고려시기 군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군인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이 아쉽다. 순군부, 내군과 금군, 도호부, 치안기구, 兵部, 軍律 등 다양한 군사기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정작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군역을 치르고, 또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는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는 것이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5. 맺 음 말

최근의 삼국~고려시기 군제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3개년에 걸쳐 발표된 삼국~고려시기 군제 관련 연구를 삼국시기, 통일신라시기, 고려시기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군제라는 것은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최근 삼국~고려시기 군제 연구도 이를 반영하는 듯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삼국시기 군제 연구에서는 삼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쟁 유형이 달라졌다고 보고 고구려는 공격지향 전쟁, 백제는

공·방편향 전쟁, 신라는 방어위주의 전쟁을 치렀다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중국의 전통적 대외 정책을 華夷論과 德化論으로 구분하고, 당의 공세적 외교 정책인 덕화론에 대응하여 신라 또한 제후국을 거느린 대국으로 자처하였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문화물질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대 한국에서는 인구가 부족하여 전쟁이 일어났다는 연구도 발표되었고, 고구려는 정복한 지역을 간접지배 방식으로 통치하였음에 비해 신라는 직접지배 방식으로 통치하여 삼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한편 고구려의 대당전쟁을 주로 외교적 측면에서 다룬 논문과 고구려의 등자 사용을 외교적 상황과 결부시킨 논문도 제출되었다.

통일신라시기 군제 연구에서는 특히 서영교 교수와 이현숙 교수의 연구가 주목된다. 서영교 교수는 「나당전쟁의 개시와 그 배경」, 「나당전쟁과 토번」, 「나당전쟁기 당병법의 도입과 그 의의」, 「신라 통일기 기병증설의 기반」, 「장보고의 기병과 서남해안의 목장」 등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나당전쟁과 신라의 기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 이현숙 교수는 종래 한국사 연구에서 도외시되었던 전쟁과 전염병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런데 서영교 교수의 나당전쟁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주로 외교적인 부문에 관심을 집중하여 신라의 군사력을 간과한 느낌이 있고, 신라의 기병에 대한 연구는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을 도외시한 느낌이 있다. 전쟁에서의 외교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고, 또 삼국통일 전쟁 이후 문무왕은 “병기를 녹여 농기를 만들라”는 遺詔를 내리면서 평화 분위기 조성을 힘껏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기 군제 연구에서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단행본이 출간되었고, 고려 초의 순군부, 內軍과 禁軍, 都護府와 都督府 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외에 고려전기의 兵部, 개경의 치안기구, 국경지대의 州鎮城 편제, 軍役 差定과 군인전, 무신란의 원인과 성공요인, 최충헌 정권의 군사적 기반, 무신정권의 정치적 유산, 고려후기 봉졸의 신분 문제, 고려 말 군제개

편안의 기본 방향 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軍律과 軍법에 대한 연구도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 軍制 개편의 기본방향을 병농일치를 기반으로 하는 2군 6위제의 복구라고 하거나, 고려시대의 軍人전을 모두 정호 출신 軍인들의 토지로 간주하는 등 통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2군 6위제는 무관 중심의 軍사조직이며, 軍人전에는 무관들의 수조지와 정호 출신 軍인의 소유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가 최근 잇달아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다.

위와 같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삼국~고려시기 軍制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軍制는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 경향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軍制사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점차 연구자와 연구 논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로 생각된다. 그리고 통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려는 문제의식도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04. 10. 20,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軍制 연구 동향, 삼국시기 軍制, 통일신라시기 軍制, 고려시기 軍制, 전쟁

K C I

&lt;ABSTRACT&gt;

The Research Trends on the Military System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Goryeo* Dynasty

Kim, Jong-soo

In order to examine the latest Research Trends on the Military System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Goryeo* Dynasty, I examined papers on the subject which were publicized from 2002 to 2004. The Military System was formed on the basis of all social forms, therefore the latest studies on the Military System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Goryeo* Dynasty were going on from diverse standpoints.

Among the studies of the Military System form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studies on war types of the Three Kingdoms were published. This study argued that the *Goguryeo* executed the offensive war, the *Baekje* executed the offensive and defensive war, the *Silla* executed the defensive war. And the studies on the Foreign Policy of the *Silla* confronted with the *Tang*(唐)'s Aggressive Foreign Policy were published. This study argued that the *Silla* pretended an empire in opposition to the *Tang*'s Imperialism. And the studi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pressure and occurrence of warfare in the *Silla* were published. This study argued that warfare was not related to over-population but related to under-population. This argument disputed the Theory of Western Anthropologists and Archaeologists arguing that population pressure had played a critical role for the explanation of warfare.

Among the studies of the Military System in the Unified *Silla* Dynasty,

the studies by *Seo Young-kyo*(徐榮教) and *Lee Hyun-sook*(李賢淑) are worthy of notice. *Seo Young-kyo* made a public the studies about the war between the *Tang* and the *Silla* and *Silla's Cavalry*. And *Lee Hyun-sook* make public the studies on the epidemic during the *Silla's* Unification War, especially smallpox. She argue that *Silla* never experienced these epidemic before and these widespread diseases encouraged the *Silla*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medical care.

Among the studies of the Military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the studies on *Sungunbu*(尙軍部) and relationship between *Naegun*(內軍) and *Gumgun*(禁軍) in the early *Goryeo* Dynasty were published. Besides, the studies on the agencies for protector general and governor general in the early *Goryeo* Dynasty, the *Ju·Jin*(州·鎭)-based fortress system of the border area in the early *Goryeo* Dynasty, etc., were published. In conclusion, the latest Research Trends of the Military System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Goryeo* Dynasty were going on from diverse standpoints.

Key Words: Research Trends of the Military System, Military System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Military System in the Unified *Silla*, Military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War